

화창한 봄날, Sekine 선생과 함께한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지난 시절, Sekine 선생과 일본, 한국, L.A에서 만나 여러 전시장, 미술관을 함께 다녔고, 같이 술 한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물질성, 공간, 재료, 환경 등등) 작가로서의 고민, 개인적 이야기 등 동료로 친구로 서로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내가 젊은 시절 일본 Kamakura Gallery 에서 개인전을 할 때 마다, 늘 오프닝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L.A 그룹 전시에도 Sekine 선생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나 역시 Sekine 선생이 한국에 오시면, 같이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함께한 전시 오픈 저녁 술자리에서, Sekine 선생이 소개해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작가들의 만남도 생각이 나는군요.

아마도, 그와 나눈 많은 대화속에,

Sekine 선생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서로에게 우정이 쌓여 간듯 합니다.

Sekine 선생이 한국 나의 작업실을 방문 하셨을 때, 그가 작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 역시 Sekine 선생에게 나의 작품을 선물해 드렸으며,

지금 Sekine 선생을 추억하며, 이 글을 쓰는 나의 서재에 그의 작품이 같이 있습니다.

5월 13일 이면 Nobuo Sekine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년이 되는군요.

Sekine 선생을 먼저 떠나보내 많이 그립고 아쉽고, 이렇게 그와의 추억으로 그를 회상해야 하지만,

BLUM & POE

Los Angeles, New York, Tokyo

Mono-ha 의 대표작가인 그의 작품이 나와, 우리 곁에 있어, Sekine 선생과 우리는 영원히 연결될 것입니다.

2020년 4월19일

Nobuo Sekine 서거 1 주기를 추모하며.

Ha Chong Hyun